

문학적 커뮤니케이션과 문예학*

허 창 운

(독문학과 교수)

1. 문학연구의 실상과 허상

문학과 문예학의 개념구분과 그 작업영역의 분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문학 현실에서 <문학적 커뮤니케이션과 문예학>¹⁾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는 일은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땅에도 근대적 의미에서의 수많은 대학이 설립되고, 다양한 학과들의 설치와 함께 문학의 영역에서도 민족별 개별어문학과들이 연이어 신설되어 왔음은 바로 언어가 하나의 학문연구대상이 되듯이 문학도 또한 독자적으로 하나의 특정학문연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학과들은 특정 언어교습소 내지 어학 강습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마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국문학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밖의 외국어문학과들은 실로 해당 외국어 전문강습소나 학원하고는 필경 다른 제반전제와 요구아래 지금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종사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실상은 어떠하였고 또 지금은 어떠한지, 나아가서 과연 해당 학문의 이론과 실천은 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한번 이런 문제들에 관한 물음을 제기해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문해보게 된다. 주변의 다른 학문분야들의 발전과 확충에 호응하여 문학의 연구분야도 스스로 내실을 기하고 학문적 당위를 구현해야 할 실천적 책임을 안고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터이다.²⁾

학문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도 문예학의 과제, 방법, 목표의 문제들을 놓고 최근에 열띤 논쟁이 비판적 해석학의 대변자들과 경험적·분석적 과학이론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³⁾, 또 지금도 다른 차원에서 이지만 그러한 논

* 본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1) 이하 <문학적 의사소통> 내지 <문학적 소통>은 <문학적 커뮤니케이션>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됨.
- 2) 줄고, "독문학 연구의 당면과제와 수용미학", 『삶과 學問』, 靑山 김재민 교수 추모논문집, 서울: 삼영사, 1985, pp. 299-321 참조.
- 3) 『독일 사회학에서의 실증주의 논쟁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Neuwied-Berlin 1969; K.-O. Apel (Hg.),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Frankfurt/M. 1971;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Frankfurt/M. 1971 등 참조.

의의 불씨가 잠재적으로 남아 있음도 알고 있다.⁴⁾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지금까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학연구의 방법이나 대상문제를 놓고 한번이라도 진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전개된 적이 있었는지, 또 이 학문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 내지 실천적 과제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토론이 성립된 적이 있었는지 필자에게는 과문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⁵⁾ 하기가 <문학>이라는 단어가 동음이의어적인 양상을 지닌 데다가 문학연구를 동칭하는 학문의 고유명칭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학문의 방법 운운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게 되거나 않나하여 누구도 감히 언급을 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⁶⁾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도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폭넓게 논의함은 물론 원천적인 기반들을 서둘러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문학이라는 현상 일반을 대상으로 삼아온 일반 문예학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연구의 대상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의사소통론적 입장에서 방법론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제의 설정은 시대적 요청사항이 됨은 물론, 문학연구가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술실천 쪽에 더 가까운가 하는 따위의 부질없는 논란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학문적 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근원적으로 제반 역사적·해석학적 학문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어차피 시론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임을 미리부터 전제해 놓기로 한다.

2. 문학연구의 대상설정 문제

예술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불가결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잉여적인' 것에 불과한가, 예술은 과연 역사를 형성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 이러한 종류의 물음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 지속적으로 그 해답이 추구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속한다. 하지만 그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한가지 방향으로 명쾌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예술과 문학이 갖는 기능과 위상에 대한 천착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는 있지만 역시 그 해답이 한쪽 방향으로만 모아질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⁷⁾

4) Philippe Forget (Hg.), Text und Interpretation, München 1984 참조.

5) 다만 문학창작 분야에서만은 지난 70년대 독재압축기에 대항하여 <자유실천 문인협의회>가 결성되어 문학운동의 형태로 동질성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단체가 <민족문학작가회의>로 다시 확대, 개편되었으나, 문학운동을 초월하여 예술의 창의성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데 과연 어느 정도로 기여하게 될런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6) <문학>과 <문예학>의 개념구분에 관해서는 출처, 『현대 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87, p. 1, p. 7f. 참조.

7) 아도르노가 표방한 부정성의 변증법적 문학론과 긍정적 기능주의적 입장의 대립은 이런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우리의 경우 오늘날 <민중문학론>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제도문학권의 반응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된다.

근자에 우리들의 서점가를 돌아다 보면 마냥 폭주라도 하듯 판매대엔 수많은 문학이론서들과 그에 관련된 역서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책들 중 상기한 문제에 관한 규명작업에 원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기가 마르크시즘적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문제가 일도양단적으로 판가름날듯이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을 혼자서 독점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유혹을 받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판권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적실성 있는 실천의 모색이라고 본다.⁸⁾

우리의 경우 솔직히 말한다면 아직도 문학과 문예학(=문학학)에 관한 개념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처지라서 상기한 문제들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토론의 광장을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신빙성 있는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혼돈상을 빚고 있는 우리의 “문학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체제정비를 서둘러, 전문적인 학문성을 정립시켜야 할 시점에 이제는 서게 된 것이다. 그로써 문학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문예학계의 당면과제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문학에 종사하는 모든 이의 관심사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세기를 통해서 문학분야에 대한 연구가 독립학문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의 발전사를 개관할 때 상기한 문제들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신구논쟁” 하나의 예만 들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문예학의 대상설정문제에 대해서는 학파나 일정한 정치관 내지 세계관 여하에 따라서 이견이 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학문의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역시 궁색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경우가 없지 않았음을 학문사는 입증하고 있다.

사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우선 ‘문학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텍스트부류의 특징제시가 요구된다. 또 나아가서는 다른 부류의 언어텍스트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일, 즉 문학텍스트⁹⁾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바로 해당 문제에 대한 일종의 권위있는 답변의 강요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확고한 정의의 정립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문학현상들이 갖는 역사적인 변화의 다양성을 고려에 넣는다면 이와 같은 개념적인 고착화들은 대체로 그 범주권의 협소성으로 인해 부적합한 개념규정으로 판정나고 말기 일쑤이다.¹⁰⁾

우리의 문예학계에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된 적이 없기

8) 줄고, “이데올로기 批判과 記號論의 文藝學”, 「문학과 비평」 2 (1987, 여름), pp. 391-404 참조.

9) <문학텍스트>라는 개념은 <문학적 텍스트>와 동의어로 사용됨에 유의. 기호론적으로는 <텍스트 Text>와 <작품 Werk>이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개념사용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항상 그 사용맥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 p. 76f. 참조.

10) J. Landwehr, Text und Fiktion, München 1975, p. 13f. 참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양의 예를 통해 이를 거론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상황과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독의 文藝學史에서 문예학의 과제, 방법, 목표에 관한 토론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60년대 후반이었다. 그 때는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 학문체계, 특히 문학과 문예학에 관한 토론의 열기가 유달리 뜨거웠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닐타이 W. Dilthey의 뒤를 이어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학문의 원칙적인 양분성, 즉 자연과학과 정신과학간의 방법론적 분리가 다시금 의문시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과학 진영의 해석학 대변자들과 자연과학진영의 경험적·분석적 과학이론의 추종자들 사이에 상당히 첨예한 쟁론이 벌어졌고, 또 이는 현재에도 어느 한쪽으로 결판이 난 것이 아님은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과학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석학 대변자들은 '이해'의 개념으로부터는 결코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공식화할 수 없으며, 악명높은 '해석학적 순환'을 그들의 학문을 신성불가침화하는 데 이용하여 급기야는 문예학을 오늘날까지도 '패러다임' 이전적인 단계에 안주하도록 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해석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석적 과학철학자들이 특히 문예학을 단순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던 것이다.¹¹⁾

물론 당시의 토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적 학문성의 독자성과 여기서 귀결되는 방법론적인 논제들만은 아니었다. 그밖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서 문예학의 사회적 역할과 적실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물음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문예학의 대상영역에 관한 활발한 토론도 그 열기에 있어서는 무시 못할 정도였었다. 사방에서 들려왔던 소리들 가운데에 문예학은 더 이상 엘리트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연구대상을 소위 고급문학작품들에만 한정시켜서는 안되며 이제는 통속문학까지도 결국 자신의 탐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즉 여하한 종류의 텍스트라도 모두 자신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예학은 자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일반적·사회적 의사소통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텍스트 자체에 한정된 분석, 더구나 가치있다는 순수문학작품들만의 분석은 문예학적 관심의 주변영역으로 물러나 버리고, 문예학의 과제로서 오히려 부각된 것은 상기한 텍스트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 즉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들 사이나 수용자들 서로 간에서 텍스트들과의 대결시에 이루어지는 소통과정의 탐구였다. 어쨌든 <문학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문예학의 특수과제영역으로서 일반적·사회적 의사소통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11) Horst Steinmetz, Textverarbeitung und Interpretation, in: A. Wierlacher (Hg.), Fremdsprache Deutsch 1, München 1980, pp.192-209, 특히 p.192f. 참조.

그렇게 자명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¹²⁾

그리하여 이러한 방향에서의 논의들은 오늘날에도 서구 문예학계에서는 다양하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이 학문의 토대에 관한 기초적인 토론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의문시되는가 하면 이제는 아무 것도 주어져 있지 않고 자명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상황이 이리할진대 문예학의 매개문제, 이를테면 자신의 교육방법(문학교육론이나 교수법 등)에 관한 거론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결국 문예학 내부에서의 토론을 통해 부딪히게 된 것은 문예학의 '도산'에 관해 혹독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논리학자, 현상학자, 언어학자, 사회학자들의 논급들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문예학이 당면하였던 당시의 위기상황은 전면적이었음에 분명하고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들이 지난 70년대를 통해 산출된 수많은 원론적인 기초화작업들이었다고 보여진다.¹³⁾ 그러한 토대구축에 의거해서 오늘날엔 문예학자들도 스스로 사회에서 유명무실한 '도락가'로서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한없이 기능화되어가는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학문관의 정초와 아울러 문학에 못지않게 문예학도 인간의 '해방'과 양질의 삶을 구현하는 데 실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게 된 것이다.

3. 문학적 소통의 기본모델

문예학의 연구대상영역이 전통적으로 답습되어 왔던 문학작품의 차원에서 문학적 의사소통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동적인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성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옮겨오게 되었음은 학문의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일대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단편적이고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현상을 다층적이고 역동적으로 고찰하려는 전체적·통합적 시각의 견지야 말로 문학현상의 전개와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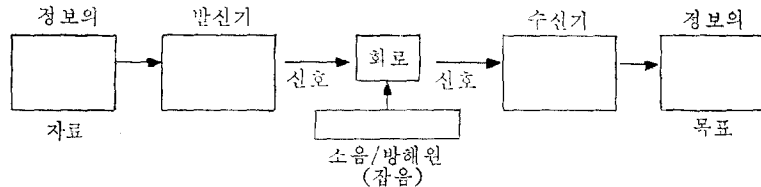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시점에서 서구의 발전된 문학관을 기반으로 하여 문학과 문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관점들을 체계화하고 또 간주관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론형성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¹⁴⁾

12) Dietrich Harth, *Literarische Kommunikation*,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g. v. D. Harth/P. Gebhardt, Stuttgart 1982, pp. 243-265, p. 245 참조.

13) Norbert Mecklenburg, *Kritisches Interpretieren*, München 1972; N. Mecklenburg/Harro Müller,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1974; H. L. Arnold/V. Sinemus(Hg.), *Grundzüge der Literatur und Sprachwissenschaft Bd. 1: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1973; Schulte-Sasse/R. Werner,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1977 등.

14) D. Harth, *Annäherung an Grundbegriffe*, in: *Propädeutik der Literaturwissenschaft*, Hg. v. D. Harth, München 1973, pp. 136-173, 특히 p. 138f. 참조.

그러나 문학적 소통도 따지고 보면 일반 언어와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의 다른 형태들과 그 근간에 있어서는 공통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일반소통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이처럼 정보전달의 의미에서 진행되는 기술적 소통과정의 기구, 조건, 과정 등은 대체로 블록도표의 형태로써 직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¹⁵⁾



“이 모델은 기술적 혹은 통사론적인 정향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정보(메시지나 전언)의 의미(내용, 의미론)도, 또 대개는 거의 동시에 메시지의 발신인이요 수신인이기도 한, 즉 약호화하는 자와 약호풀이하는 자의 이중역할자로서 의사소통을 행하는 자도 고려에 넣고 있지 않다. 그는 특정한 생각과 표상들을 지니며 수신인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어 내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호체계(저장기호)의 도움을 얻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목표를 추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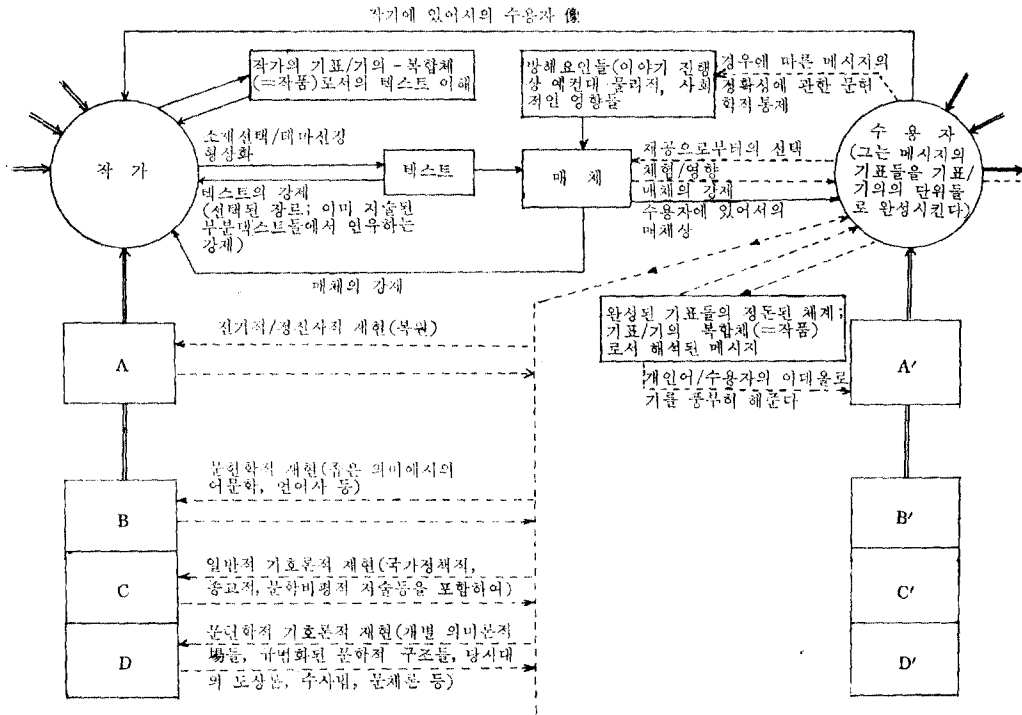
이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학문적(사회학적, 심리학적 등) 소통모델에는 그것의 기본단위들인 약호화하고 약호풀이할 수 있는 능력의 화자와 청자,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규칙들을 지닌 하나의 [...] 공통된(관습적인) 약호체계/저장기호, 전달(시각적, 청각적, 접촉적 회로나 매체) 및 가능한 방해들(소음, 잡음)을 가리키는 지시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상이한 사회적 계층, 연령층, 직업, 지역적이거나 방언적인 번역들에 의한 약호상의 편차들도 고려된다. 또 모든 소통에는 각기 상이한 경험지평과 기대지평, 지식의 저장, 의도와 감정, 심리적·생리적 상태, 특정한 대화전략이나 상황적 요인들 및 최종적으로는 제도적 규범들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실제적 의사소통의 과정적 현상과악은 극히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다 기술될 수는 없으며, 또 현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규명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어차피 잠정적인 단순화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에서 묘사된 <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모형>은 상기한 일반 의사소통모델에 준해서 우리의 선이해를 도식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학적’ 소통은 일차적으로 일반 소통과정의 구성인자들을 변화시켜서 그 존재양태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가공성 Fiktivität>과 <허구성 Fiktionalität>의 활성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대상과 실태들의 존재양상을 의도적으로 재해석하는 일, ‘픽션’을 통해 이 재해석들을 ‘허구화’하고 약호화하는 일 등은 인간이 현실과 대결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대응력 축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손적 현실을 재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에 통합적인 구성성분이 된다. 즉, 새로운 인식획득과 ‘인식소화’를 위한 하나의

15) 이하 Th. Lewandowski, Linguistisches Wörterbuch, Bd. 2, Heidelberg · Wiesbaden 1985, p. 536f.

〈문학적 의사소통의 기본모델〉



〈부호설명〉

- A** : 개인어/작가의 이데올로기(당시대의 기호론적 가능성들을 배경으로 한 주관적, 언어적, 사상적 레파토리)
- B** : 작가가 관계하는 일반언어적 약호체계(예컨대 괴테시대의 독일어, 고려시대의 중세국어)
- C** : 당시대의 일반 기호론적 구조들(상대적 일관성을 지닌 채 자연어틀 기호로 하여 구축되는 보다 더 복합적인 구조들)
- D** : 작가가 관계하는 하위체계들(개별 의미론적 場들, 규범화된 문학적 구조들, 기타의 텍스트들 등등)

- A'** : 개인어/수용자의 이데올로기(자기시대의 기호론적 가능성들을 배경으로 한 주관적, 언어적, 사상적 레파토리)
- B'** : 수용자가 관계하는 일반 언어적 약호체계(예컨대 1977년의 독일어; 괴테 당시의 독일어와 그것이 차이가 나는 한, 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차이가 나는 한, 그것은 중요하다.)
- C'** : 당시대의 일반 기호론적 구조들(상대적 일관성을 지닌 채 자연어틀 기호로 하여 구축되는 보다 더 복합적인 구조들)
- D'** : 수용자가 관계하는 하위체계들(예컨대 규범화된 공시의틀, 문학적 관습들(전통), 개별의 미론적 場들 등등)

〈도식해설〉

- 1) ⇒ 이 이중화살표로 암시된 의사소통과정의 결정인자들은 공식적으로나 통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수용자의 의사소통적 활동을 나타낸다.
- 2) 이 도식은(작가와 수용자의 경우, 가는 화살표로 암시되었음) 작가와 수용자의 집단 내지는 계급소속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학적 단위들 및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방해의 방식들(의사소통의 검열, 파괴, 왜곡 등)을 도의시하고 있다.
- 3) 이 도식은 피드백 과정들과 상호영향들(단순화의 방식으로) 역방향의 화살표로써 나타내고자 한다.
- 4) 이 도식은 예컨대 작가와 수용자의 기호론적 콘텍스트가 어느 정도로 서로 매개될 수 있는지, 혹은 상호 전환될 수 있는지의 문제들과 같은, 의사소통과정의 해석학적 문제들을 도의시하고 있다.

처리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현실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는 ‘유희’로서의 픽션들은 그 기능상 현실에 대한 수정을 내지는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인자로서 규정되고 동시에 “문예학의 과제는 모델형성적 예술형식으로 문학의 소통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구된 문학적 의사소통모델들은 대체로 기호론적 테두리내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와 같은 도식을 갖추고 있다.¹⁸⁾

위에서 묘사된 문학적 소통의 기본모델에서 그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작가—텍스트(매체)—수용자>의 3원 요소의 연속성은 기록된 텍스트의 경우 비구속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 분석작업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작가—텍스트>의 차원과 <텍스트—수용자>의 차원으로 분화된 측면들을 특정한 선택요소들에 따라 탐구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아래와 같이 해체되었다.¹⁹⁾

① 작가중심적 문제들 :

전기적 연구, 창조성의 연구, 작가사회학, 생산미학(시학, 수사학) 등

② 텍스트중심적 문제들 :

장르사, 텍스트이론, 보급에 관한 연구, 서술미학 등

③ 독자중심적 문제들 :

독서현상학, 해석론, 독서대중사회학, 수용미학 등

이 중에서 특히 ③항에 속하는 분야들은 최근에 와서 새롭게 조명되어 재평가받고 있는 영역으로서 문학적 소통이론과는 직결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작품자체가 아닌 수용자가 핵심을 이루는 의사소통과정에 연구방향을 둬으로써 수용자의 의미형성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용미학은 문학의 상이한 여러 수용들을 작품에 대한 ‘좌초’로 치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의사소통 과정상에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용자는 문학작품을 텍스트의 지시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의미론적 가능성도 기초로 하여 매번 스스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의미형성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형성되어 나오는 수용사는 문예학이 관심을 갖는 핵심과제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수용미학은 문학텍스트가 그것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콘텍스트에 원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예술미학이요 예술이론이 되는 셈이다.²⁰⁾

16)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35 그리고 Fiktion und Nichtfiktion, in: H. Brackert/ J. Stückrath (Hg.), Literaturwissenschaft. Grundkurs 1, Reinbek b. Hamburg 1981, pp.380-405, 특히 p.398f. 참조.

17)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35.

18) 이는 Schulte-Sasse/R. Werner,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1982, p.204에서 묘사된 도식으로서 인쇄의 제약상 약간 변용되었음에 유의.

19) D. Harth/P. Gebhardt (Hg.), Erkenntnis der Literatur, p.246 참조, 줄저, 『현대 문예학개론』, p.12 재인용.

20) 이하 Schulte-Sasse/R. Werner, 같은 책, p.202f. 참조.

이와 결부해서 로트만 Lotman은 예술적 의미형성물이 記標/記意-복합체로서 의사소통 과정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과 그리고 의미형성물의 역사적 가변성으로부터 <텍스트 Text> 와 <작품 Werk>을 서로 구별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²¹⁾ 이는 부분적으로 무카로프스키가 이미 다룬 바 있는 물질적인 ‘인공물’과 ‘미적 객체’(대상)라는 개념과 일치한다.²²⁾ 그렇기 때문에 로트만은 전통적인 문예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정, 즉 문학 작품은 자신들의 텍스트로서 문예학자의 주관주의에 대항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것, 실재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개념은 단지 물질적 기호 형상일 뿐이며, 그것은 시간초월적 형식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서는 아직 불완전하고 게다가 의미가 비어 있기 때문에 매번 구체적인 수용과정에서 하나의 의미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 75 문학적 소통의 기본모델 참조). 이에 반해서 <작품>개념은 의미총괄의 결과를 위해서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의미구조로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은 기표/기의-복합체로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역사적·구체적 의사소통과정의 산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바로 앞에서 기술된 문학적 소통과정의 모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인데 이와 관련해서 부각되는 측면이 곧 문학적 소통의 화용론적 관점이다.²³⁾

4. 소통모델의 화용론적 기반

결국 문학이라는 현상이 안고 있는 가변성이나 과정성은 문학의 ‘본질’을 포착하겠다는 모든 정의들을 빗나가게 하고 만다. 문학의 경계를 구분짓는 다음과 같은 변별자질들, 즉 “문학텍스트에서의 진술문장들이 갖는 準판단적 성격”, “허구성”, “재료의 조직성과 통일성”, “고유한 대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학어의 특수능력”²⁴⁾ 등등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한편으로 문학과는 다른 텍스트부류에도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문학텍스트의 변별특징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준들을 속속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텍스트들이 ‘문학적인’ 것으로서 생산되고 또 그렇게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고대의 시학들(아리스토텔레스나 호라티우스 등)에서 출발하여 현대 작가들의 강령적 언표들에 이르기까지 미학의 틀 안에서 소위(순)문학의 결정적인 속성으로서 설정되어 오고 있는 특징들이나 한계기준들의 목록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레파토리는 결국 규정할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러한 규정들의 대변자에 관한 언급이 되기 일쑤이다.

21) J. M. Lotman, *Vorlesungen zu einer strukturalen Poetik*, München 1972, p. 169.

22) R. Warning, *Rezeptionsästhetik als literaturwissenschaftliche Pragmatik*; in: Derselbe (Hg.), *Rezeptionsästhetik*, München 1975, p. 13f. 참조.

23) R. Warning, 같은 책, p. 31f. 참조.

24)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13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식의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이제 달리 제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역동적, 진화적 성격과 그것의 사회적이고도의 의사소통적 기능들을 고려에 넣는 물음들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점은 언어적 소통의 다른 형식들에 대비되는 문학의 변별성, 구분성의 토대가 분명 구축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다. 예컨대,

- “특정시점에서 특정수용자에 의해서 ‘문학적’이라는 특징을 부여받는 텍스트는 어떻게 수용되는가?
- 그것의 텍스트적이거나 텍스트외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 문학적 소통을 다른 형태의 언어소통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 구성성분들은 무엇인가?
- ‘문학적’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는 텍스트구성전략과 해설전략들이 존재하는가?”²⁵⁾ 등등.

이런 류의 질의는 문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을 조건짓고 있다. 더 이상 텍스트나 텍스트부류 및 그 특징만이 연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의사소통의 전제와 조건들도 동일하게 문예학의 분석과 기술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다.

〈문학〉이 일단 ‘문학적’ 것으로 간주되는 언어텍스트들의 집합이 된다면, 이 집합을 다른 언어텍스트들 보다는도 특출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문학성’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견해는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도 불변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없음은 앞에서 이미 시사된 바와 같다. 이 견해는 오히려 역사적이고 사회제약적이며, 또 연령, 집단, 성 특유의 변화와 격차에 지배를 받고 있다. 문학이 무엇이며, 그것의 고유성과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따라서 문학적 소통의 ‘담지자들’, 즉 문학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인 문학비평, 광고, 판매, 교육, 연구 등 〈문학사업〉 전체를 포함하여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²⁶⁾

그러므로 문학에 결정적인 구성성분들과 인자들이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형체나 정황은 문학을 〈체계 System〉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보여준다. 체계라고는 하지만 이때에도 그것은 다수의 다양한 요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시적으로는 역동적이며, 공시적으로는 개방적인 체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학〉이라는 체계를 위해서는 대상의 규정에 반드시 문학적 소통의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언어체계에 속하는 기호는 원천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들)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사소통형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 목표, 견해들에 문학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

25)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13.

26)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15f. 참조.

학의 이론에서 반드시 감안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화용론적 관점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²⁷⁾

화용론적 견해에 의하면 순수한 언어내재적 이론형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언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이해됨으로써 언어사용자들의 의도, 목적 및 목표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장들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문학현상의 고립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문제들과 접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론형성의 토대를 제공하는 화용론은 말하자면 그것이 모든 기호차원들이나 기호관계들을 포괄하게 되는 한, 가장 구체적인 기호론적 층위로 해석될 수 있다.²⁸⁾ 따라서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이론형성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목표로 투여되는 수단을 포함해서 수행적·소통적 상호행위들의 복합적인 실태와 관련된다.

문예학은 자신의 대상을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적 수단으로 이해할 경우에 그와 같은 포괄적인 이론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초적 단계에서 개발되어 일상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화용론적 이론이 의미있게 보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학적 의사소통의 특수한 전제들, 이를테면 “허구적 텍스트들을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 게임’, 대개는 반문가능성이 배제되는(‘피드백’의 탈락) 소통상황, 수용자의 해석전략과 이에 상응하는 텍스트 구성전략을 조종하기 위한 언어적, 텍스트적, 언어외적 및 텍스트외적 수단들, 수용상황의 전제들과 메시지의 ‘재구성’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 문학적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²⁹⁾ 등이 화용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란트베어는 강조한다.

5. 문학작품의 구조성과 그 실상

이렇듯 오늘날의 지배적인 문학관에 의하면 문학은 단지 잘 조직된 텍스트의 부류 내지 집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집약적 구조와 허구적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변적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적 ‘예술작품’은 언어기호들의 단순한 집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된다. 언어적 기호연쇄는 단일한 객체로서 특정 ‘과정’의 선행조건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 ‘과정’의 잠정적인 촉매제로서 간주될 뿐이다. 문학적 소통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언어재료와 수용주체의 태도 및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성과’와 함께 협동함으로써 비로소 한 언어적 발화는 예술작품, 즉 ‘문학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때 이 주체는 일련의 언어기호들을 하나의 미적 객체(대상)로서 이해하게 된다. 말하자면 언어적 소

27) W. Iser, *Der Lesevorgang*, in: R. Warning (Hg.), *Rezeptionsästhetik*, pp. 253-276 참조.

28)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30f. 참조.

29)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35.

여들에 언어외적이고 텍스트초월적 관계들이 부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관계들이 합쳐져서 비로소 ‘문학작품’을 구성한다. 로트만도 그의 『구조시학에 관한 강의』에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문학작품’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실재는 전적으로 텍스트안에서만 현현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는 단지 관련요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문학작품의 현실적 실체는 (텍스트내적 관계체계로 형성된) 텍스트가 텍스트외적 실재, 현실, 문학적 규범, 전통 및 관념들과 맺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를 인지하는 일은 그것의 텍스트외적 배경과 분리해서는 불가능하다.”³⁰⁾ 그러므로 로트만은 ‘작품’을 “하나의 보편적 부류 내지 기본집합”으로 규정한다. 이때 “텍스트적인 것과 텍스트외적인 것의 연결들은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평가된다.”³¹⁾ 개별적인 문학작품이나, ‘문학’이라는 개념 하에 포괄될 수 있는 텍스트들의 부류도 따라서 관계적 단위들로 규정되며, 텍스트 자체는 언어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제관계가 형성하는 하나의 체계로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내적 연계들은 단지 언어메시지의 통사론적 차원만을 나타낼 뿐이다. 즉, 이 관점은 언어기호의 상태와 그 연결만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언어기호를 고립시킨다. 그러나 기호와 기호연결들은 그것들이 대변하는 대상영역, 대상(객체), 즉 기의를 위해 상정된 수단인 셈이다. 그래서 이 의미론적 차원에는 문학텍스트의 의미, 즉 그것의 현실연관이 상응한다. 하지만 기호와 기호연결들은 기호사용자나 解釋素들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특정목적들과 특정의도하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한 해석소가 특정한 목표, 목적, 소망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수단을 하나의 객체에 귀속시켜 기표행위를 수행(=기호화)하는 이 ‘기호상황들’은 역시 문학텍스트의 화용론적 차원이 되며, 이는 각기 자기나름의 조건적이고 피조건적인 전제들, 표상들, 견해들, 의도들 등을 지니고 있는 생산자와 수용자(작가와 독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에서 언급한 통사론과 의미론의 차원들도 모두 포괄한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언어적 기호체계의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로, 언어사용의 그러한 형식에도 역시 기호론 내에서 기호 일반을 위해 구성적이라고 묘사되는 관계들이 유효하기 때문이다.³²⁾

이런 맥락에서 언어학적, 기호론적 또는 통계적 처리절차들을 문학텍스트들의 분석에 적용하여 그 사용된 언어수단들의 특수상태를 가지고 그것들의 ‘시적 속성’이나 ‘문학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문학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자료를 근거로 하여 문학적 ‘경계짓기’의 기준을 얻어내고자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 견해는 하나의 ‘시적 언어’를 공준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는데 이 시어는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규정될 수 있는 하나의 통용어나 일상어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의 문단이나 전체 텍스트같은 문장초

30) J. M. Lotman, Vorlesungen zu einer strukturalen Poetik, München 1972, p.180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36에서 재인용).

31) J. M. Lotman, 같은 책, p.184.

32)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36f. 참조.

월적 단위들이 문학성을 결정해야 할 경우, 문장의 한계내에서 문학성을 위해 구성적이라고 보여졌던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 각별히 ‘문학적인’ 속성을 좌우하게 되는 범주가 텍스트의 독특한 ‘구조화’이다. 이는 문학텍스트의 또다른 한 변별 특징이 되며 동시에 그것의 문학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인자가 된다. 이로써 ‘시적 언어’라는 한계기준대신에 ‘시적 텍스트’라는 특징이 상정되고 따라서 시학의 과제는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적 층위에만 한정하는 일 역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의 수용자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이상적인 내지 이상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구조의 인지와 그에 상응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그러한 추상적인 층위에서는 문학적 구조화의 규범들과 텍스트작성처리들의 통시적 가변성 및 스스로 변화하는 구체적 수용상황들의 조건과 전제들은 배제된다.

로트만 역시 과학적·실용적 이유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시야를 이러한 다분히 통사론적·통합체적 관점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내적 관계들은 정밀하게 규정될 수 있는 반면에 텍스트외적 관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외적 구조들의 도움없이 텍스트만을 단순히 기술하는 데에서 오는 실천적인 ‘공허성’과 ‘불입성’은 오늘날 탈구조주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하나만 보아도 능히 추정될 수 있는 일이다.³³⁾

이처럼 정태적 구조주의가 안고 있는 현실안주적 이데올로기의 보수성에 대한 비판은 급기야 학문론의 쟁점으로까지 비화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개별학문분야에서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천착작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6. 문학과 문예학의 사회적 역할

궁극적으로 문예학이 담당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보편적 관심에 따라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묻는 일, 즉 문학의 유용성을 따지고 그 기능의 변천상을 추적하여 밝혀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문예학은 그런 과제를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만큼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전통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문예학이나 미학영역에서 구하는 일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의 영역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문학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분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33) Jan-Dirk Müller, Literaturgeschichte/Literaturgeschichtsschreibung, in: D. Harth/P. Gebhardt (Hg.), Erkenntnis der Literatur, pp.195-227, p.216 참조.

문학의 유용성에 대한 물음이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이의 대답 역시 문학을 초월한다. 즉, 그 대답은 문학내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되어 내려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학을 소통의 한 특수형식으로 간주함으로써 소통의 다른 형식들과 관련지워서 이 관련의 장 안에서 문학교유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예학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학문들도 참조하게 된다. 심리학과 사회학이 주체의 주체내적 소통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과의 상호주관적인 소통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그런 분야들은 문학의 기능에 관련해서 간과될 수 없는 필수자료가 되는 것이다.³⁴⁾

물론 문학텍스트의 견해들은 “수용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그 타당성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타당성이란 과학텍스트의 그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내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문자들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 그것들은 수용될 때 비로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독서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와 대결함으로써 그 진실됨을 보전해야만 한다. 작가의 권위가 여하히 기초되어 있든지 간에 텍스트의 타당성은 거기서 연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와 대결하는 데에서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작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의 삶의 역사를 만드는 작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³⁵⁾

문학적 소통의 의의는 바로 이러할 때 더욱 다져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문학을 이러한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경향은 주로 60년대 서독의 소장 문예학자들의 연구들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대상을 더 이상 고립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삶의 총체성 안에서 보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문예학은 자기자신의 비판을 통해 사회화과정에서 계몽적으로 작용하고자 하며, ‘비교양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을 문예학은 오랫동안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종함으로써 희생시켜 왔던 바, 이는 역시 대부분의 뛰어난 독일작가들에 반대되는 사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지난 60년대의 후반기였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문학연구계에도 최근에는 점차 자신의 연구대상을 독립체로서 보지 않고 사회적 삶의 총체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³⁶⁾ 해방 이후 지금까지 특히 국어교육분야에서는 다분히 탈정치적 성향의 순수문학추구적 방향에서 문학교육이 주도되어 왔으나 이러한 순수주의가 차차 퇴색되어 가는 도상에서 세겨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판단된다. 어쨌든 문예학계의 진향적인 비판의식

34) H. D. Zimmermann, Vom Nutzen der Literatur, Frankfurt/M. 1979, p.18 참조.

35) H. D. Zimmermann, 같은 책, p.172.

36) 홍정선, “문학교육의 제문제”, 『우리시대의 문학』, (1986. 5), (권두주제 “한국사회와 문학적 인식의 문제” 중에서), pp.99-108 참조.

은 미구에 우리의 문학연구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으리라고 전망될 정도로 이제는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생각된다.

7. 결 론

이로써 우리는 문학과 ‘문학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우리의 선지식 내지는 선이해의 기틀을 대체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일단 문학이 의사소통의 한 형식으로서 정의내려지는 경우, 이 대상규정에는 문학이 문학외적인 다른 현상들과 한 가지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내지 구어적 의사소통이라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학적’이라는 개념에는 또한 ‘예술적’, ‘인위적’ 내지 ‘비일상적’이라는 뜻도 함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는 ‘문학적인’ 것으로서 생산되고 수용되는 텍스트류가 ‘비문학적’이라는 특징을 지닌 텍스트류와 차이가 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때문에 문학은 구어적 의사소통의 한 특수형태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소통참여자들이 ‘허구적인’ 의사소통을 서로 용인하고서 문학행위를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기막힌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그건 소설같은 이야기야’, ‘아니 한편의 시같구나’ 등의 표현으로 곧잘 비유하는 것을 본다. 이는 그러한 실상이 현실과는 다른 허구적 문학세계에서나 있음직하다는 인식의 간접적인 표현에 다름 아니다. 문학적 ‘허구성’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결손’이나 현실의 빈약함에 대해서 보완적이고 수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결국 상습적으로 작가나 작품 자체에서 출발하는 전통적 문학연구자세가 오늘에 이르러 동태적으로 열려있는 문학적 의사소통쪽으로 그 대상영역을 확장시키고 과정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문예학의 구성층위들이 다차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장르론적이고 전기위주의 연구방향들을 넘어서서 문학과 문학적 소통영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일반화시키고 체계화하는 ‘질서 형성적’ 작업의 층위가 문학이론분야의 과제영역이 된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반원칙들에 대해서 함수관계를 이루는 변수적 특성들은 문학사라든가 문학사회학 내지 문학심리학 등의 부문들이 취급하게 되는데, 역시 이러한 전문부문들은 문학과 그 주변여건들과의 제반 관계차원을 주목하기 때문에 해당 독립전문분야, 말하자면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문학이 언어적 의사소통인 한, 언어학, 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기호학, 매체연구 등과 관계됨은 물론, 또 그것이 일종의 예술형태인 한에 있어서 미학이나 예술학과 연관되어 있음과도 같은 양상이다.³⁷⁾

37) J. Landwehr, Text und Fiktion, p. 19 참조.

여하튼 문학사나 문학사회학, 문학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은 그 바탕에 문학적 '상수'들을 깔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예학에서의 상수적인 것과 변수적인 것의 함수관계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동적으로 열려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업의 결실은 결국 문학교육론이나 문학비평, 경우에 따라서는 문학생산이나 문학수용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거나 응용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부문에 걸쳐서 영위되는 제반 활동들을 포괄하는 학문분야 전부를 통칭해서 우리는 <일반문예학>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의 선행작업이 이루어질 때 문학과 문예학을 혼동하고 있는 불투명한 관행의 이중성도 앞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무런 선입견없이 순수하게 사실자료들만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마 문학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실태와 실정의 인식은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는 오히려 이론에 의해 주도될 뿐더러 이론 제약적이기까지 하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는 이론의 틀안에서 설정된 가설들에 의해서 대상, 사실 및 실태들에 관한 특정한 물음의 해답이 추구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은 그러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精査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다만가지로 문예학에 있어서도 역시 이론을 형성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논거는 자연과학에서처럼 그렇게 엄격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충분히 견고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론을 개발하고 응용하며 정사하는 주체의 자세를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그의 관심의 정체와 향방을 가려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문학이 예술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 심미성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문예학적 작업까지 전적으로 예술화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예학이 지니고 있는 '아포리아'가 존재하는 것이고 문예학의 존립근거를 다른 학문분야와는 달리 계속 의문시하는 입장에서부터의 도전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³⁸⁾ 따라서 문예학적 자기성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안게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H. Brackert/J. Stückrath(Hg.), Literaturwissenschaft. Grundkurs 1/2, Reinbek b. Hamburg 1981.
- Philippe Forget(Hg.), Text und Interpretation, München 1984.
-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Frankfurt/M.

38) 참고, "이데올로기批判과 記號論的 文藝學", p. 391ff. 참조.

- 1971.
- D. Harth, *Annäherung an Grundbegriffe*, in: Derselbe(Hg.), Propädeutik der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1973, pp.136-173.
- D. Harth, *Rezeption und ästhetische Erfahrung. Literarische Kommunikation im Forschungsprogramm der Literaturwissenschaft*, in: A. Wierlacher(Hg.), Fremdsprache Deutsch, Bd. 1, München 1980, pp.211-244.
- D. Harth, *Literarische Kommunikation*, in: D. Harth/P. Gebhardt (Hg.), Erkenntnis der Literatur, Stuttgart 1982, pp.243-265.
- W. Iser, *Der Lesevorgang*, in: R. Warning (Hg.), Rezeptionsästhetik, pp.253-276.
- H. R. Jauß, *Ästhetische Erfahrung und literarische Hermeneutik*, München 1977.
- J. Landwehr, *Text und Fiktion*, München 1975.
- J. Landwehr, *Fiktion und Nichtfiktion*, in: H. Brackert/J. Stückrath (Hg.), Literaturwissenschaft. Grundkurs 1, Reinbek b. Hamburg 1981, pp.380-404.
- J. M. Lotman, *Vorlesungen zu einer strukturalen Poetik. Einführung. Theorie des Verses*, München 1972.
- J. M. Lotman, *Die Struktur literarischer Texte*, München ²1981.
- Th. Lewandowski, *Linguistisches Wörterbuch*, Bd. 2, Heidelberg·Wiesbaden ⁴1985, p.536f.
- N. Mecklenburg/Harro Müller, *Erkenntnisinteress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1974.
- J.-D. Müller, *Literaturgeschichte/Literaturgeschichtsschreibung*, in: D. Harth/P. Gebhardt (Hg.), Erkenntnis der Literatur, Stuttgart 1982, pp.195-227.
- Schulte-Sasse/R. Werner, *Einführung in die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²1982.
- H. Steinmetz, *Textverarbeitung und Interpretation*, in: A. Wierlacher (Hg.), Fremdsprache Deutsch 1, München 1980, pp.192-209.
- R. Warning (Hg.), *Rezeptionsästhetik. Theorie und Praxis*, München 1975.
- H. D. Zimmermann, *Vom Nutzen der Literatur.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literarischen Kommunikation*, Frankfurt/M. 1977.
- 허창운, “독문학연구의 당면과제와 수용미학”, 『삶과 학문』, 靑山 김재민교수 추모논문집, 서울:삼영사, 1986, pp.299-321.
- _____,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출판부, ²1987.
- _____, “이데올로기批判과 記號論的 文藝學”, 『문학과 비평』 2 (1987, 여름), 서울:탑출판사, pp.391-404.
- 홍정선, “문학교육의 제문제”, 『우리 시대의 문학』(1986.5), (권두주제 “한국사회와 문학적 인식의 문제” 중에서), 서울:문학과 지성사, pp.99-108.

〈Zusammenfassung〉

Literarische Kommunikation und Literaturwissenschaft**Tschang-Un Hur**

Diese Studie bemüht sich, über die heutige Lage der koreanischen Literaturwissenschaft einen allgemeinen Überblick zu verschaffen und im Rahmen der Gegenstandsbestimmung der Literaturwissenschaft einen der modernen wissenschaftlichen Tendenz adäquaten Literaturbegriff einzuführen.

In diesem Zusammenhang kommt vor allem der literarischen Kommunikation als eigenem Forschungsbereich ein besonderes Gewicht zu. Wenn die Prozeßhaftigkeit und Veränderbarkeit des literarischen Phänomens in seiner Begriffsbestimmung beachtet werden soll, muß die traditionelle Verfahrensweise des Strukturalismus so modifiziert werden, daß die statische Struktur in diachronischer Hinsicht offen und in synchronischer Hinsicht dynamisch funktionieren kann. Erst in diesem funktionalen Literatur-System findet praktisch die Vermittlung zwischen dem Literaturproduzenten und dem Literaturrezipienten durch die Lektüre der literarischen Texte statt.

Die heutige Literaturwissenschaft will diesen ganzen Vorgang eben unter den Begriff der literarischen Kommunikation aufnehmen und eingehend untersuchen. Diese Analyse und ihre Darstellung wird weitgehend im Rahmen der Semiotik, vor allem der Pragmatik in Angriff genommen. Hierbei soll nicht übersehen werden, daß die pragmatische Arbeit nur von der Sicht eines kommunikativen Subjekts erst angemessen durchgeführt werden kann. D. h. das literaturwissenschaftliche Verfahren soll seine Relevanz hauptsächlich durch die kritisch-hermeneutischen Methoden rechtfertigen.